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V schedule grid for KBS1, KBS2, MBC, KBC/SBS. Columns include channel name, program title, time slot, and channel number.



채정안 “차분한 멜로 연기로 승부하세요”

SBS ‘카인과 아벨’서 두 남자와 사랑으로 얽힌 김서연 역 열연

“서연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심장이 아픈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분 나쁘지 않은 통증이예요.” SBS 수목드라마 ‘카인과 아벨’에서 심장병을 앓는 작곡가 김서연으로 출연 중인 채정안은 “서연을 이해하려고 하면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랑하는 감정을 연기할 때는 심장이 쿵쿵쿵 딱 뛰다”며 역할에 푹 빠져 있는 느낌을 설명했다.

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방황한다. “10년 전 가수로 춤추고 노래할 때는 힘들고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아서 회의감도 들었어요. 지금은 연기하면서 제가 대중들에게 이슈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만족해요.” 채정안에게 이러한 변신의 ‘터닝포인트’는 2007년 방송된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이었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이혼의 아픔을 겪은 그가 KBS ‘해신’ 이후 2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작품이었다. 이 드라마와 함께 30대에 접어든 그는 이제 ‘카인과 아벨’로 20대보다 더 화려한 시기를 꽃피우고 있다. “매우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앞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이제 채정안이 브라운관에서 뽐어내는 매력은 20대의 발랄함이 아닌 30대의 여성스러움이다. “지금 제가 ‘카인과 아벨’의 한지민 씨처럼 사투리를 쓰며 귀엽게 뛰어다니면 어울리겠어요? 한때 선풍품 같은 시절에 성숙한 척 하려다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나이에 맞게 차분한 모습이 편하게 나와요.” 이어 그는 “모든 것을 다 잘하기보다는 지금의 이미지로 중심을 잡고 싶다”며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멜로 연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휴뉴스



Go board game section including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and '궁하면 붙여라' with a diagram and commentary on the game strategy.

EBS TV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program titles and time slots.

EBS Plus 1 and Plus 2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program titles and time slots.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Wisdom of the Heavens Today's Fortune) for March 18th,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prediction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and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provides practice exercises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